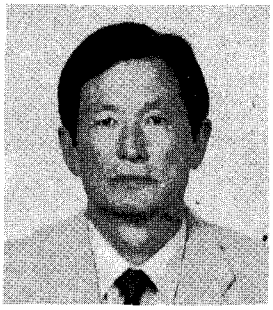
축산인을 염려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 일꾼을 뽑자



이 신 재
전남도지회장

지난 '9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다. 국제 옥수수가격이 톤당 187달러를 상회하면서 사료값이 두차례씩이나 올라 농가를 어렵게 하였으며 '96년 2월초부터 사료값을 10%정도 올리겠다는 업계의 움직임은 축산 농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많은 유제품들이 수입되어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하여 제조되던 식품과 유제품들이 수입 유제품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시유만은 수입되지 못할것이라고 예측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유품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틈새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7주인 멸균유가 수입시판되고 있어 7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유품질논쟁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낙농사의 커다란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낙농가는 원유위생차등지급제 실시 이후 많은 시설투자로 원유의 질적향상을 꾀하였으며 더좋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매스컴에서 혐오스러운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 우유에 대한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표현에 대하여 분노와 지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유품질 논쟁으로 인해 1월말 현재 국내 분유 재고량은 8천1백81톤이 누적되고 있는데 소비둔화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축산인의 어려움을 함께 염려해주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명예나 정치적인 야욕, 체면때문에 수년을 걸쳐 우리 낙농가의 숙원과제인 낙농진흥법, 부가가치영세율적용, 어느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었다. 다시는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낙농가의 소중한 한 표를 이용하려드는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낙농진흥법 개정 요구 및 절대적인 원유가 인상등의 이유로 경영혁신에 투자해야 할 우리 낙농가의 소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결의 대회에 허비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키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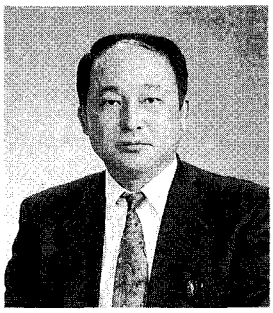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축산인의 어려움을 함께 염려해주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명예나 정치적인 야욕, 체면때문에 수년을 걸쳐 우리 낙농가의 숙원과제인 낙농진흥법,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어느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었다. 다시는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낙농가의 소중한 한 표를 이용하려드는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건강 식품인 우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을 낙농가가 펼쳐나가야 하며 목장경영을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사양관리를 하고 국제 경쟁력에 대응키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당 산유량 증가를 위한 수정란이식사업, 고능력우 개량 등으로 두당 산유량을 높여 생산비를 줄여가는 방법을 제안한다.

'96년 한 해에는 낙농육우인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이 종 준
본회 부회장, 경북도지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사료값 인상과 원자재,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원유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도달되어 협회는 원유가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낙농인이 궐기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감수하며 투쟁한 끝에 원유가 5.2% 인상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한 수준은 못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였습니다.

작은 기쁨도 채 가시지 전에 모 방송국의 우유에 대한 편파 보도로 인하여 우유파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작금의 일들은 우리 낙농가의 책임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 여파가 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낙농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낙농진흥법이 5년이란 세월을 두고 개정 못한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회원 여러분!